

건설경기 침체에 모래 대란까지...지역 공사현장 차질

레미콘업체, 골재난에 납품 포기 타지서 반입...운반비·단가 상승 공사현장 수요량 50% 공급 그쳐 산지 채취 규제 완화 등 대책 필요



바닥이 보인 장성한 레미콘 공장 모래 야적장의 모습.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공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래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역 건설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재 수급난이 심화되며 아파트 등 주요 민간·공공 공사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관급공사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용 모래와 자갈 등 골재는 레미콘 생산의 핵심 원자재지만, 지역 내 자원은 거의 고갈된 상태다.

일부 레미콘업체는 모래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

돼 있고 수요가 몰려드는 상황에 수요량의 50%선 밖에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기존 산지들이 채취 한계에 도달했거나 환경 규제로 추가 허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고창과 남원, 경남 거창 등 외지에서 장거리 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운반비 상승과 함께 생산단가 급등이 불가피해졌다.

레미콘에서 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레미콘의 기본 단위인 1㎡의 무게는 2300kg 정도인데 이 중 모래 중량이 800~1000kg로, 많게는 40%까지 차지한다.

여기에 시멘트가 350~400kg, 자갈이 800~1000kg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모래 비중이 절대적인 셈이다. 레미콘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를 밑도는 상황에서 모래 가격 추가 상승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레미콘 업계의 주장이다.

골재 수급난은 곧 공사 지연과 직결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 R&D 첨단3지구 조성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간 국도 건설 등 광주·전남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골재 부족 사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골재 수요는 꾸준한 반면, 신규 골재 채취 허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환경단체 반발, 제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골재 채취지는 갈수록 줄고, 기존 산지는 생산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실제로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골재산지 확대와 허가 간소화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광주전남 지역은 이미 수도권과 비교해 골재 자급률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 불안에 더욱 취약한 구조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산지의 채취 허용 범위를 일부 완화하거나, 유휴 채취장에 대한 재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단순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골재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골재 대체자원 발굴, 수입골재 활용방안, 유통구조 개선 등이 있다. 동시에 환경영향을 줄이는 '스마트 채취기술' 개발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기구 운영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신세계, 장마철 레인부츠 선풍 광주신세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가 와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장화를 선보인다. 플레이스팟에 위치한 '헌터(HUNTER)'는 영국 부츠 브랜드로 레인부츠부터 우산,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비 오는 당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레이니 데이(Rainy Day)'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가 와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장화를 선보인다. 플레이스팟에 위치한 '헌터(HUNTER)'는 영국 부츠 브랜드로 레인부츠부터 우산,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비 오는 당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레이니 데이(Rainy Day)'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경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

내달부터 중기에 안전전문가 파견 현장 맞춤형 컨설팅...안전관리 제고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 참여 중인 사업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가(공동안전관리자)를 파견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현장 밀착형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밀집 지역 내 고위험 업종 대상 집중 관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을 한층 끌어올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도 활발히 추진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조선내화, 26년 연속 노사 임단협 무교섭 타결

산업현장 협력·상생모델 '주목' 기업 지속가능성·경쟁력 제고

조선내화 노사가 26년째 임금단체협상 무교섭 합의를 이어가며, 산업 현장의 협력·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내화는 26일 광양공장에서 노사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협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사간 임단협 무교섭 합의는 지난 2000년 이후 올해로 26년째 이어지는 조선내화의 전통이다.

조선내화 노사는 지난 198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오면서, 단 한번의 분규 없이 평화적인 노사문화를 실현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회사창립 70주년을 맞아 포항공장에 노사평화탑을 건립



조선내화는 26일 광양공장에서 노사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협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조선내화 제공

하기도 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국형 노사 상생모델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이현세 노동조합위원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회사가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조합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노사가 합심해 눈앞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조가 앞장서

겠다"고 밝혔다.

최광철 조선내화 대표는 "전쟁과 보호 무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 철강업계가 존폐의 기로 앞에 서 있다"며 "위기를 기회 삼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관계에 앞장서 준 노조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비극적인 전쟁, 투자자에게는 공포 속 기회다

전쟁은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무참한 살육과 약탈이 동반되고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희생되며 어떤 흉악 범죄보다도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어난다는 안되는 비인간적 사건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전쟁에 대해서 역설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았다. 전쟁이 투자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증시가 급락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에는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가 많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간 충돌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이후 주춤하던 한국 증시는 24일 트럼프의 양국 간 휴전 합의 발표 후 무려 3%가 급등해서 코스피 지수 3100을 넘어섰다

과거의 사례도 비슷하다. 1939~1945년 2차 세계대전 시 미국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전쟁 발발 직후 하락했지만 진주만

공습 이후 군수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국 경제는 전쟁 중에도 50% 이상 상승했다. 1990년 걸프전 때도 미국 증시는 1990년 중반까지 하락하다 1991년 미국의 공습 개시와 함께 빠르게 반등해서 S&P500은 이후 3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었다.

2003년 이라크 전 때는 전쟁 전까지 조정을 겪고 있던 증시가 오히려 바그다드에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자 상승을 시작해서 S&P500은 이후 20% 가까이 상승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침공 당시 각국의 증시는 일시적인 충격 을 받았지만 에너지와 방산주의 강세, 기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이 투자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역설이다. 전쟁은 분명히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는 위기지만 자본 시장은 냉정하게도 인간의 고통과는 상관 없이 단지 시장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전쟁은 산업구조와 유통성의 흐름에 변동 을 주게 되는데 투자자는 전쟁 자체 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전쟁은 투자자에게 공포 속의 기회일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다시없을 비극 이겠으나 시장에 순응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냉혹함이 투자 세계의宿命일지도 모른다.